

## 때아닌 이념싸움…‘중도진보’ 아쉽다

매카시즘 안되지만 맹목적 종북과는 선 그어야…“대선 기선잡기 역겹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가 시대착오적 ‘색깔론’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탱해왔던 중도 진보(개혁)의 가치가 실종되고 시대적 현안으로 부상했던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복지 확대 등의 정책은 때 아닌 이념 논쟁에 묻히고 있다.

대선 기선 잡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무분별한 이념 논쟁은 세계적 경제 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불안하고 고단한 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으로 촉발된 종북 논란을 계기로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식의 색깔론 공방이 이어가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 등 여권은 통합진보당 사태와 입수경 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을 놓고 대대적인 이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은 지난 1일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경선 부정의 절차적 문제를 이념 문제로 판을 키웠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일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어 안타깝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 라디오 연설에서는 “북한의 주장은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밝히는 등 종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원



6·25 참전국 잊지말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 광주지역 보훈단체장과 광주지방보훈청 직원, 전남대학교 학군단원들이 광주 북구 중외공원 올림픽 동산에서 6·25 전쟁 참전 21개국의 국기와 UN기,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대표도 국회의원 자격 심사 등을 주장하고 나서 이념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종북’ 논란의 유단이 떨어진 민주통합당은 ‘매카시즘’을 앞세워 새누리당의 이념 공세에 맞서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국가관을 이야기하며 모든 민생 현안을 종북 문제로 덮으려는 것은 굉장히 매카시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대대적인 반격에 동참했다. 이해찬 후보는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이념 공세를 자행하

고 있다. 악질적인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으며, 김한길 후보는 “새누리당의 색깔론을 근간으로 하는 신 공안정국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시대착오적 이념 공방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시대적 현안 해결과 미래지향적 발전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대선이 이념 논쟁에 물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색깔론의 유혹에서 벗어나 집권 여당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민주당도 전통적으로 지켜온 종도 진보적 가치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혹여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진보당의 당원으로 남아 달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한다면 중앙당기위를 통해 당원으로 남을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비대위는 지난 5월 12일 종북주의와 매카시즘도 문제지만 이제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입동욱기자 tuin@kwangju.co.kr

###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결정 반발

### 통합진보당 신-구당권파 갈등 확산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 해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구당권파와 신당권과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자진사퇴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아직 유효함을 강조했다.

그는 “혹여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진보당의 당원으로 남아 달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한다면 중앙당기위를 통해 당원으로 남을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비대위는 지난 5월 12일

일 중앙위원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가담자 16명을 해당 시도당 소속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당원비대위 등 구당권파는 당기위의 제명 결정을 접한 직후 “계엄 하에서의 군사재판”, “독재정권의 사법부” 등 극단적 단어를 사용하여 반발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

### 행안부 再議 요구

### 광주시의회 거부

#### 법적공방 불가피

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이어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도 청문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광주시장도 최근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안을 제출했던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공청회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광주시를 통해 요구한 재의에 대해 거부입장을 나타냈다.

윤봉근 의장은 이날 열린 제20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닌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공청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행안부와 광주시가 무리하게 재의를 요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유엔대학 환경研 연내 광주 유치”

#### 김영준 광주과기원 신임 총장

광주과기원(GIST)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인 ‘유엔대학 환경연구소’를 유치한다.

■ 인터뷰 5면

광주과기원 김영준 신임 총장은 7일 “연내에 UN대학 환경연구소를 유치해 전 지역의 과제인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연구소는 생명공학과 환경 및 인류의 안전, 혁신 및 기술 중점 경제 사회, 지속 가능성 및 평화, 전 지역 보건, 천연자원 빙고지역, 식량 및 영양, 수산·수자원, 환경 및 보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풀체인지 The new M-Class 출시  
062)226-0001



##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2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2년 6월 10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campaign.com](http://www.pinkcampaign.com)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손목 아대

